
 금융위원회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			 금융감독원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<b>배포</b>	2018.6.27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전 요 섭 (02-2100-2950)	<b>담 당 자</b>	박 진 애 사무관 (02-2100-2953)
	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센터 선임국장 신 원 (02-3145-8170)		정 지 훈 팀 장 (02-3145-8190)
	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업무실장 고 일 용 (02-3145-8350)		이 선 진 팀 장 (02-3145-8356)

## 제 목 : 신한·하나·국민·농협 지주 및 우리은행 등이 D-SIB으로 선정 - 2019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·은행지주회사(D-SIB) 선정 결과 -

◆ 32개 은행·은행지주회사(7개 은행지주, 6개 국내은행, 19개 외은지점)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4개 은행지주회사(자은행 포함) 및 우리은행을 시스템적 중요 은행·은행지주회사로 선정 (전년과 동일)

### 1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결과

□ 금일('18.6.27일) 금융위원회는 '19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·은행지주회사(D-SIB)를 아래와 같이 선정

○ (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) 신한금융지주, 하나금융지주, KB금융지주, 농협금융지주

○ (시스템적 중요 은행) 우리은행 및 은행지주의 자은행\*

\* 신한·제주은행(신한지주), KEB하나은행(하나지주), 국민은행(KB지주), 농협은행(NH지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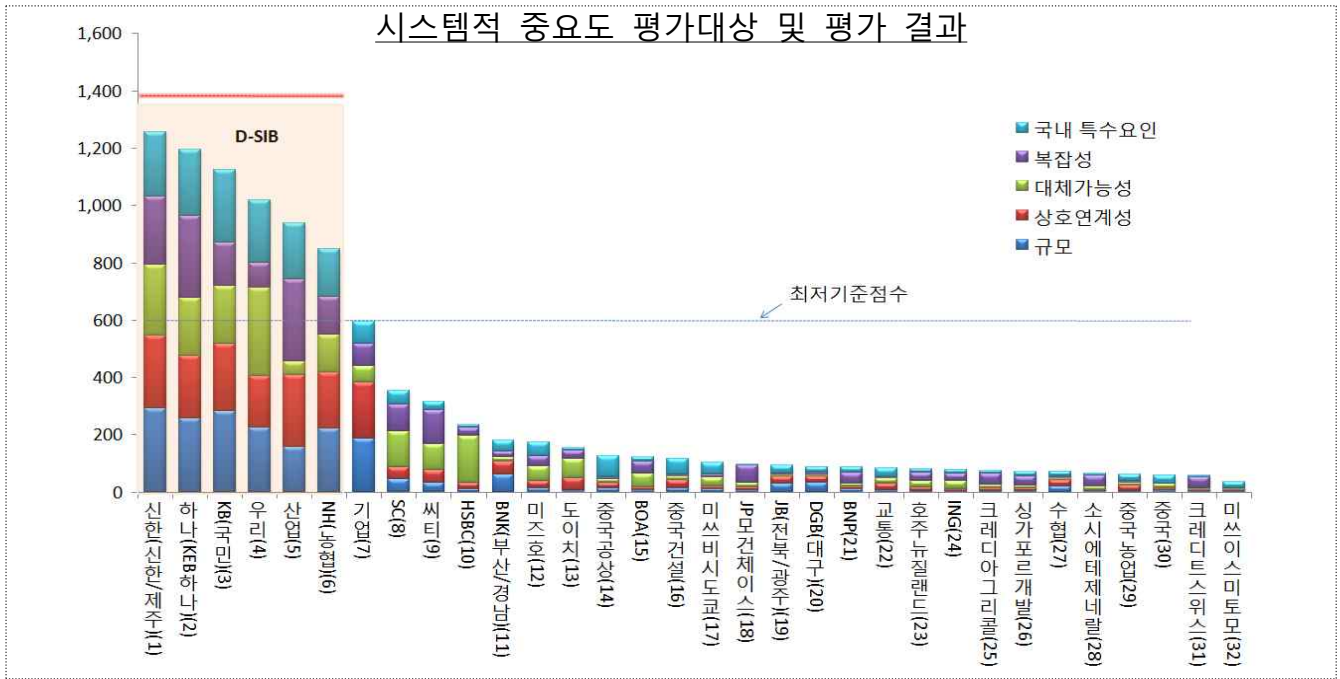
□ '16년 제도 도입 이후 4년간 동일한 은행·은행지주가 D-SIB으로 선정

#### <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>

◇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, 하나금융지주, KB금융지주, 농협금융지주, 우리은행, 한국산업은행이 D-SIB 선정 기준을 상회

○ 이에 상기 은행지주·은행 및 해당 은행지주의 자은행을 D-SIB으로 선정하되

○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D-SIB에서 제외



## 2 향후 계획 및 평가

□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·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'19년에 1%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

< '19년 D-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(%) >

	기본 적립비율	자본보전 완충자본 <sup>1)</sup>	경기대응 완충자본 <sup>2)</sup>	D-SIB 추가자본	적립필요 자본
보통주	4.5	+2.5	+0.0	+1.0	8.0
총자본	8.0	+2.5	+0.0	+1.0	11.5

- 1)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'19년까지 2.5%의 완충자본 부과
- 2) 신용팽창기에 최대 2.5%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(현재 0%)

○ 다만, D-SIB으로 선정된 은행·은행지주 모두가 '19년 최저적립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

< '19년 D-SIB 선정 은행 자본비율 현황('18.3월말, %) >

	신한 지주	하나 지주	KB 지주	우리 은행	NH 지주	신한 은행	제주 은행	하나 은행	국민 은행	농협 은행
보통주자본	13.04	12.93	14.52	11.07	10.53	13.28	9.44	13.93	14.89	12.26
총자본	14.83	14.85	15.08	15.09	13.06	16.30	14.56	16.27	15.80	15.25

\* '18년 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(잠정)

## 1 시스템적 중요 은행 개요

- 바젤위원회(BCBS)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 은행·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음
- 이에 바젤위원회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(G-SIB)을 선정, 중요도에 따라 1%~2.5%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중
  - 더불어,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(D-SIB)을 선정하고, 해당 은행·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
-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'16년부터 D-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 중
- '16~'18년도(적용연도 기준)에는 10개 은행·은행지주회사가 동일하게 D-SIB\*으로 선정, 추가자본\*\*을 적립하였음
- \* D-SIB(5개사) : 하나지주, 신한지주, KB지주, 농협지주 및 우리은행  
D-SIB내 자회사(5개사) : 하나은행, 신한은행, 제주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
- \*\* (16년) 0.25% → (17년) 0.50% → (18년) 0.75% → (19년 이후) 1%

## &lt;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 개요 &gt;

구분	G-SIB	D-SIB
정의	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(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)	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(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)
평가주체	바젤위원회	각국 감독당국
대상	글로벌 대형은행	국내 대형은행
추가적립자본	1.0~2.5%	1%*

\* 추가자본(1%)을 '16년부터 4년간 매년 1/4씩 보통주자본으로 단계적 적립 (매년 0.25%)

## 2 평가 개요

□ **(평가대상)** 은행지주회사, 은행(은행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)\* 및 외은지점('17 회계연도말 총자산 5조원 이상)을 평가대상에 포함

\* ① 은행지주회사의 자은행은 평가대상은 아니지만, 모회사인 은행지주회사가 D-SIB으로 선정시 자은행도 동일한 D-SIB 자본적립

② 수출입은행은 평가대상에서 제외

③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은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 등을 감안하여 D-SIB 추가자본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

④ 인터넷전문은행 및 이를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

□ **(평가부문)** 5개 평가부문의 부문별 평가지표는 동일 가중치로 평가

평가 부문	D-SIB 평가지표	가중치
1. 규모(20%)	총익스포저	20%
2. 상호연계성(20%)	타 금융회사에 대한 자산	6.7%
	타 금융회사에 대한 부채	6.7%
	증권 발행규모	6.7%
3. 대체가능성(20%)	원화결제규모	6.7%
	외화결제규모	6.7%
	보호예수자산	6.7%
4. 복잡성(20%)	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	10%
	당기손익-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및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*	10%
5. 국내 특수요인(20%)	외화부채	10%
	가계대출	10%
총 합	5개 부문 11개 지표	100%

\* 2018.1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09호 시행으로 명칭 변경(변경전 : 당기손익인식증권 및 매도가능금융자산)

□ **(평가점수)** 개별 은행·은행지주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평가지표별 가중치로 가중평균하여 산출(「시장점유율」 개념)

○ 총점이 600bp 초과시 D-SIB으로 선정하여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